

# 민주통신

http://ilovekt.org/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  
희망의 빛이 되는 민주통신이 되겠습니다.  
**KT 전국민주동지회**

제22호 2012년 9월 발행처 | KT전국민주동지회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0-10 TEL | 02-701-0070 FAX | 02-704-4441

## 6.2% 임금인상 요구안으로는 부족하다!

- 두 자릿수 임금인상, 특별성과급 지급 요구로 회사를 압박하자!!!

○ 10여 년간 물가인상률의 반 토막뿐인 임금인상률. 이제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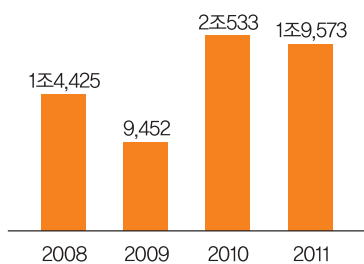
임금인상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kate' 내 '열린토론평'을 중심으로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임금인상 vs 정년연장'이라는 게시물은만 여건이 넘는 조회수와 200여건의 리플을 기록하며 열띤 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민주통신 7월호에서 증명했듯이 지난 10여년간 kt의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었고, 사실상 실질임금의 삭감이 이루어져왔다. 2001년도와 2011년도의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11년 동안 14%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연평균 1.2%에 불과한 임금인상률이다. 같은 기간 동안 36%의 물가인상이 이루어졌는데, (아래 표 참고)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의 임금인상은 결국 무자비한 임금삭감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이제 이 격차를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임금인상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다.

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등등 갖가지 핑계들이 지금까지 동원되어 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러면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직원들에게 그만큼의 떡고물이라도 쥐어줬던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결국 회사는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단결해서 요구하지 않는 한 스스로 먼저 나서는 경우는 절대 없는 법이지 않던가?

더구나 kt는 결코 '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아니다! 도대체 영업이익을 매년 2조원가량 올리는 회사가 임금인상을 할 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임금을 올려줄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옆 도표에서 보듯이 2010년도에 kt는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인 약 1조2천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6천여억원이 주주배당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그 해 임금은 동결되었다. 민주동지회가 계속 지적해왔듯이 kt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주배당으로 다 빨려나가는 기형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올려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KT 영업이익 추이(단위:억원)



연도별 물가 상승률

연도	물가지수 (%)
1998	7.5
1999	0.8
2000	2.3
2001	4.1
2002	2.8
2003	3.5
2004	3.6
2005	2.8
2006	2.2
2007	2.5
2008	4.7
2009	2.8
2010	3
2011	4

○ 임금인상을 요구하기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때마다 모든 회사들은 임금인상의 여력이 없다고들 한다. kt사측도 마찬가지였다. 통신산업의 성장세가 멈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

○ 임금인상 지금이 밀어 부칠 때다

한편 지금 kt가 위기상황이므로 임금인상은 어렵다고 회사는 주장할 것이다. 물론 최근 언론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kt의 부실, 불법경영의 실태들을 보면 kt가

위기라는 말이 사실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kt의 위기가 아니라 kt에 포진한 낙하산 경영진과 이석채 회장체제의 위기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이 이러한 부실, 불법경영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kt노동조합이 그동안 회사의 부실, 불법경영에 대한 내부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 그만큼 임단협에서 더욱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 젊은 직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kate내 '열린토론폰'에서 표출되는 임금수준에 대한 불만 중 주목할만한 대목은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더욱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지난 2009년도에 전격적으로 도입된 '고과연봉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승진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효과는 없어진데다, 낮은 수준의 연봉에서 출발하다 보니 인사고과에 따른 인상률 몇 퍼센트로는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주노조를 새로 세워 고과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낮은 연차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노동조합에 바란다

10월4일, 노동조합은 201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노조는 기준연봉 월정액 6.2%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듯이 그 동안의 임금삭감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자리수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아마도 노조에서는 고과인상분(평균치)까지 포함하면 9.4%의 인상률이므로 두자리수에 근접한 인상율인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호봉과 승급에 따른 인상효과가 사라진 이상 고과인상분을 임금인상율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더구나 2011년도부터 기준연봉을 기준급(70%)과 역량급(30%)으로 나눈 후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준급의 750%로 개악하면서 성과급도 줄어들지 않았던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요구수준을 충분히 반이안아, 두자리수 임금인상율과 적어도 300% 수준의 특별성과급 지급요구를 요구안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요구안과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단호히 반대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kate 열린토론폰에 올려진 직원들의 목소리

● 임금인상 (2012-08-28)

불가능하지 않은거 아닌가요?  
인원이 많아서 임금을 못주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솔직히 주주를 위한 임원진, 경영진들 때문인거죠.  
주주배당을 조금만 줄여도 직원을 위한, 직원이 회사를  
위하는 분위기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경영, 임금동결, 위기의 회사, 어용노조  
이런 변명 그만 듣고 싶습니다

● 용감한 직원들 (2012-08-28)

임금인상및 정년연장 당연한것 아닌지요!!이게 바로 용감한  
직원들입니다.

● 노조 탄핵 (2012-08-28)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정도로 노조를 불신임 한다면...  
이쯤해서 노조탄핵투표 함해야하지 않나요??

● 지금은 임금인상, 정년보장 문제가 아닌...

과연 지금노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야 할 때인것 같네요..  
직원들을 위한 노조인 만큼 직원들의 신임을 잃었으면  
당연히 퇴진시키고 다시뽑는게 맞을듯~!

● 지난 5년간 (2012-08-28)

임원 연봉 평균 인상률의 반에 반만이라도 인상되었으면  
좋겠네요

● 엇박자 (2012-09-07)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현재의 연봉을 20% 정도  
깎는다고 해도 투표시는 회사가 조작하면 90% 이상  
나오는거 아닌지요? 현실이 이렇진데 이런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직원들이 투표후 개표시 삼삼오오 뭉쳐  
투표장소에 가서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진실의 판도라를 열다!

박찬성 전팀장 양심선언! KT 본사에서 기획 실행!

KT에서 2006년4월 최초로 CP비밀 퇴출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긴 사실은 약 2년이 지난 2008년1월에 익명의 관리자 제보에 의해 최초로 세상에 알려 지게 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한마디로 딱 잡아떼었다. 그런 사실 전혀 없노라고. 두 번째 CP 퇴출프로그램 문건이 안모 전 지점장으로부터 유출되어 2010년7월 발표되었을 때에는 일부 지역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발뺌을 하였다. 이어서 2011년4월8일 퇴출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에 옮긴 전 관리자 반기룡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세 번째 문건을 발표하자 회사는 이번에는 일부 지사에서 인력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사와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사에서 작성된 1,002명의 CP 퇴출대상자 명단이 있는 네 번째 문건이 2011년 12월 본사직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어 폭로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9월21일 본사 인력기획부에서 근무하였던 박찬성 전팀장이 퇴출관련 문건을 직접 기획하고 작성하였다고 양심선언을 통해 밝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던 KT의 모르쇠 행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KT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특정지사에서 임의적 작성 및 비공식 문건이고, 실제 부당한 인력퇴출이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해 졌고, 퇴출프로그램이 KT 본사에서 만들어졌고 전사적으로 시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석채 회장은 CP관련 진실을 인정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KT봐주기식 노동행정을 중단하고, KT 본사 및 모든 계열사, 자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척결해야 한다!



## 박찬성 전팀장의 9.12.자 CP 관련 양심선언문

- 먼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획조정실 인력기획 업무를 하면서 주로 인건비를 유지하거나 줄이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매출액 대비 19%대로 인건비를 유지하는 “중기인적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장을 포함 5명이 전담반을 구성하여 작업을 하였으며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적정인력규모를 산정하고 적정인력규모 대비 초과인력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및 2007년까지 퇴출 인력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본 계획은 작성 후 인재경영실장까지 보고가 되었으며 인사담당과 공유하여 부진인력의 퇴출프로세스 및 퇴출규모를 인재경영실에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 퇴출인력은 인건비 19%선을 유지하려면 2007년까지 1,470명을 퇴출시켜야 적정인력인 36,600명을 유지하며, 대상은 명퇴거부자, 직위미부여자, D고과자, 해사행위자(민동회) 등 부진인력(일명 CP)으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기획(안)입니다.
- 인재경영실에서는 퇴출프로그램의 가동이 불법적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 관련 담당자 이외에는 극비에 추진하였으며
- 지역본부에는 직접 찾아가서 목표인력을 보여주고 지역본부별 부진인력을 선별하여 본사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저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인재경영실 보수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인건비를 최대한 축소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에 맞게 2006년 10월 현재 부진인력의 퇴출 숫자가 251명 시행된 자료를 뽑아서 보고서에 인용하는 등 전체 인건비를 유지 및 감소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저는 당시에는 지시하는 데로 작성하고 기획을 했으나, 추후 시행단계에서 많은 선배 및 동료 등이 압박을 받고 퇴사를 했다는 소리에 죄책감이 들어 2007년에 인재경영실에서 기업고객부문으로 조직을 이동하였고,.... 이후 생략

# 본사 차원의 부당노동행위 녹취록을 통해 밝혀지다!

KT 본사 노사협력팀이 팀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본사 노사협력팀이 조직적으로 관리자 교육을 통하여 소위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현장조직 '민동회'에 대한 전방위 관리를 지시하는 등 지배개입을 해온 사실이 은수미의 원실에서 입수한 녹취록을 통해 지난 9.19일에 밝혀졌다. 녹취록에 나오는 교육과정은 '조직관리실무' 제4기 교육으로, 전국에서 노사관련 팀장 약 40명을 원주연수원에 집결시켜 부당노동행위를 체계적으로 교육시킨 것이다. 이는 바로 이석채 회장이 재임하고 있는 올해 4월10일에 발생하였다. 올해에만 최소 300여명 이상의 관리자들을 1박2일에 걸쳐 교육시켰다고 하며 녹취록에 언급된 내용대로라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수년전부터 제도적으로 자행돼온 것이다.

이미 CP관련 양심선언에서 전 관리자인 반기룡씨와 박찬성씨는 민동회를 해사행위자로 분류하여 CP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음을 폭로한 바 있다. 녹취록에 담긴 교육내용을 들어보면 '민동회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에는 관심없고 자신들의 이념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조합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들을 특별관리하며 조합원들의 접근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한 노조대의원 선거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투표표소 설치 여부를 사용자인 지사장이 노사협력팀에 요청하여 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노조선거에 지배개입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민주동지회 특정회원에 대해 정당하게 공채로 입사했음에도 위장취업자라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까지 한 사실을 보면 과연 얼마나 회사가 양심적인 민주노조운동 세력이 조합원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회사의 공식예산과 인원을 투입해가며 버젓이 부당노동행위를 전사적으로 자행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잇따른 양심선언과 녹취록 공개를 통하여 회사측은 CP퇴출 프로그램으로 노동자를 학대하고 탈법적 지배개입으로 노조무력화를 시도해 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물론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그 동안 회사측이 자행해온 부당노동행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KT에서 CP퇴출프로그램과 노조무력화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건강한 노동조합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사업장인 KT에서 노동자 학대프로그램인 CP비밀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것이며 수많은 사망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올해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무급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하고,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위한 대포폰을 사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도 CP퇴출프로그램과 노조무력화로 낙하산 경영진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속에서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노조무력화에 앞장서온 조합원 탄압기구인 노사협력팀을 즉각 해체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KT경영진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녹취록 중 부당노동행위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

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찬가지로입니다. 민동회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다 아시겠지만 민동회의 성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금속노조, 그 이외에는 또 민주노총, 민주노총에 있는 다른 이상한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KT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

사람이 굉장히 자만을 했습니다. 피통합지부가 있었습니다. 회사로 조직 지사가 없어졌습니다. 지부장의 직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부장 직위만 유지

해주는 그 대신에 만약에 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 지부가 공존하기 때문에 투표는 투표소를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지부는 지사장이 자기가 자신 있기 때문에 민동회 후보가 설령 출마됐지만 한 곳에서 투표를 해도 내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히려 지역노사팀에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서 한 이야기가 민동회 후보 쪽으로 나온 그 직원을 그해 1월 달에 발령낸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지사 내에 아는 사람들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표결과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사팀에서 그 사람이 ... 라고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막상 투표할

터 지금 2009년까지 ... 하면서 실질적으로 민동회를 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마찬가지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나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파인가 ... 표를 가져갔습니다. ... 니다. 그것처럼 지금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서 우리 KT에 6급 공채로 위장취업을 했습니다. 했

투쟁 보고 - 국회앞 1인시위

민주동지회는 2012.9.20(목)부터 국회앞과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석재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참고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은 10월5일부터 10월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낙하산폐해]

# 박찬성 전팀장의 보복해고 원천무효화 되어야

민주통신 8월호 기사에서 자세히 보도한 바와 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낙하산의 전횡과 사익추구로 인해 1조4천억 규모의 말레이시아 철도통신 공사 수주가 벽에 부딪혔으며, 심지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박찬성 팀장이 8월30일자로 보복 해고되기까지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낙하산들이 어떻게 유명회사를 내세워 정상적인 부하 직원의 공사 수주를 가로채려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익과 회사의 공적 이익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낙하산 경영진의 폐해는 조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의원 16명(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박찬성 전

팀장의 원직복직을 지난 9월 21일 이석채 회장에게 촉구 하고 나섰다. 이후 9월24일자 예정되었던 박찬성 팀장의 징계위원회 재심이 10월 5일로 일단 연기되었다. 박찬성 전팀장에 대한 보복해고는 재심을 통하여 반드시 원천무효화 되어야 한다.

**KT 낙하산 폐해로 해임된 박찬성 前 팀장의 "원직복직" 을 촉구한다**

- 귀사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 얼마 전, KT 내부의 부당노동행위(ICP 피출프로그램)와 회사내부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항의성견을 한 박찬성씨의 목소리는 낙하산 인사에 정면전공으로부터 KT 내부를 긴장하게 할 만큼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KT는 박찬성씨 같은 직원에게 보상은커녕, 낙하산 인사가 박찬성 팀장의 성과물을 가로채고, 회사와 국익에 반하는 잘못을 하도록 그를 내버려두고 책임시키기까지 했습니다.
- 박찬성 팀장은 글로벌영업본부 마케팅 4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날, 3조 4천억 규모의 철도통신사업을 수주하려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인 김홍진 부사장이 자신의 20년지기 친구회사인 "말레이시아알파나스" 라는 업체를 통해 계약 추진하던 것을 본사 윤리경영실(김사실)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사장은 휘하의 김 모 상무를 시켜 사업전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장을 거지시키거나, 추진 중이던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와의 MOU 체결을 물론 무산시켜버립니다. 무려 1조 4천억 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체결할 기회를 회사 스스로, 아니 일원 개인의 사적인 이유로 날려버렸습니다.
- KT 임원의 출장거지와 사업관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박찬성씨는 삼성물산과 MOU를 맺는(2012. 7. 6)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박 찬 팀장에 대해 부당한 징계와 해임 조치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것은 징계위원회에 명백을 이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김홍진 부사장이 사적인 판단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했음을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 KT는 이제 "착종의 기업" 이란 오명을 떨쳐버리고, 기업의 경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박찬성 씨와 같은 내부감시의 목소리를 보듬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일당과 경제민주화추진의원 모임 일당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박찬성 전 팀장의 원직복직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나, 9월 24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하나, KT와 부당노동행위를 저권이라도 인정, 직원을에게 사과하고 낙하산 인사로부터 외사를 지켜내는 길을 선택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KT가 이제라도 반성과 성찰을 통해 바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고삐를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24일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가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012. 9. 21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김기식 7

김기준 2 김성주 김태주 김재윤

김현미 박홍근 박홍근 송소창

오영식 2 이상호 유문혜

은수미 이복희 이민영

장하나 2 한진애 홍종학

## 9월 23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 참가기 “고향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전국 곳곳에서 1천여 명이 모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작업장을 옮길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전국에서 이들을 불러 모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운동이 벌어졌음에도, 정부는 꿈쩍도 안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중국, 버마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참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반감이 매우 광범하다.



제도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노동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학대와 차별, 모욕적 대우에 대해 자신들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고, 상처받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고 외쳤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분노한 이면에는 이명박 집권 기간 내내 후퇴해 온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허가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이날 집회 제 목처럼, 연단에 오른 이주노동자 연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그동안 쌓여 온 불만들을 쏟아내며, 한국 정부의 위선과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이주민센터 캄보디아 노동자 대표는 “회사를 자주 옮기는 것이 문제인가요? 한 사업장에서 월급을 제대로 주고, 사고 나지 않는 작업 환경 만들어 주고, 식사 시간과 쉬는 시간 보장하고, 차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 떠나고 싶겠어요? 회사를 옮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생생하고 통렬한 발언은 많은 지지와 박수를 받았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들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개뿔이었다. 우리 아빠는 친구도 5년 사귀면 가족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온지 20년인데 아직도 노예다. 고향에서 나는 가난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노동부 장관은 일 하나 안하고 회식자리서 술마시면서 노동정책 정하는데, 그런 사람말고 여기있는 우리 노동자 중에 한 명을 장관시키면 훨씬 잘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나쁜 정책들을 우리 이주노동자에게 먼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분명 한국 노동자들에

제를 사용자들의 편익과 이익만을 따라 개악해 왔다. 직장이동을 가로막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사실상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을 삭감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퍼뜨리는 범죄와 질병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입국과 체류 자격을 더 강화하고 인종차별적 인식을 앞장서 조장해 왔다. 뜨거운 햇빛 아래 긴 시간 진행했지만 참가자들은 생기가 넘쳤고,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섞여 함께 구호를 외치며 벌인 도심 행진은 집회 참가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번 집회는 연대가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8월 19일 집회보다 많은 30여 단체와 노조들이 이 집회에 참가해 연대했다. 민주노총의 여러 지역본부들,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 건설노조 활동가들 외 여러 노동자들부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조계종 노동위원회 등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연설에서 “민주노총은 이주노조를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제 막 다시 전진을 시작한 이주노동자운동에 민주노총의 실질적인 연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계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에 내국인 노동자들도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 영원한 노동자

## 김윤환 동지 영면하다

초대 민주동지회 의장을 맡았던 (전)강북지부장 김윤환 동지(현 월곡지사 소속)께서 간암과 투병끝에 지난 9.15일 새벽에 운명하셨다.

민주동지회 회원을 비롯한 수많은 동료직원들과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 슬픔을 나누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평소 kt노조민주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진보정당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고인이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지역의 진보정당, 단체들 또한 빈소를 가득 매우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빈소에서 거행된 추모식에서는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kt노조 민주화와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결의가 이어졌다.

### ● 고인 약력

- 1957년 경북 안동 출생
- 1985년 한국통신(kt) 입사
- kt노동조합 강북지부장 역임
- kt전국민주동지회 초대 의장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장 역임
-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 김윤환 동지를 떠나 보내면서....

김윤환 동지!

목이 메어도 부르기도 불러도 이제는 메아리조차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군요.

동지를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낸 허무함이 가슴속 깊이 절절하게 파고듭니다

동지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들,

웃고, 울고 분노하며 열정을 쏟아냈던 지난 활동들이 새삼,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동지와 인연을 맺게 해준 한통노조 민주집행부의 탄생과 쇠락, 민주동지회 결성과 회사의 탄압, 끊임없이 펼쳐졌던 집회와 투쟁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사업 그리고 선거투쟁등..

동지와 함께 온몸을 던져가며 열정을 쏟았던 수많은 활동들이

이젠 안타깝게도 기억속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윤환 동지!!!

동지의 육신은 비록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만 그 재는 민들레 흩씨처럼 수많은 민중들 가슴속에 되살아나서 세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해방된 평등세상으로....

동지가 염원했던 해방세상을 그려보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동지이름 석자를 다시 불러 봅니다.....

김 윤 환 동지여!!!!

유 덕 상 (KT 5대 노조위원장)